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월 3일(주일) 제1081호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로 시작합니다

2016 선교헌금 작정 ... 1월 3일, 10일
자동이체나 헌금봉투, 중보기도 및 재능기부도

2016 선교헌금 작정행사를 한다. 오늘(3일)과 다음 주일(10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2016 선교헌금 작정행사가 실시된다.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행사에 참여하면 된다. 중보기도와 재능기부도 후원 가능하다.

선교헌금 작정은 자동이체(CMS)나 헌금봉투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선교헌금 작정 신청서에 신규 후원인지 후원 연장인지를 꼭 표시해야 한다. 소속캠퍼스, 성명,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예금주 생년월일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작정금액은 금액란에 체크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란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헌금봉투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정금액을 적어야 한다. 선교헌금 봉투를 수령할 캠퍼스도 선택해야 한다.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는 성도들에게 "2016 선교헌금 작정 행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관련기사6면〉 문의: 02-3215-361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한창

1월 23일까지 이어져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한창이다. 벌써 절반이 지났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주제로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와 30개 해외비전교회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산상수훈 말씀을 선포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을 재조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선주 목사부터 여성계몽운동에 힘썼던 여메레까지 16인의 선배들을 소개했다. 앞으로 18명이 더 소개될 예정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는 성도들의 사연도 다양하다. 수원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8살 박시원 어린이는 설교노트를 쓰고 있고,

대학청년부는 도심 속에서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 공해룡 성도는 70평생 처음 새벽기도회에 나오고 있다.

예배사역본부장 김영진 목사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특집_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2면 신년기획_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선교지 4-5면 사역_‘군부대 짜장면선교’를 아시나요? 7면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70평생 처음 새벽기도회 나온 공해룡 성도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저에게 올해는 변혁의 해요, 혁명의 해입니다.”

지난해 10월 강동 온누리교회 공해룡 성도의 세례 간증 일부다. 그의 말처럼 철저한 무신론자로 70평생을 살았다. 종교를 배척하는 사람이었다. 회사 부도위기를 두 번이나 겪으면서 치열하게 살던 사람이었다. 70년 동안이나 예수를 배척하던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계기가 무엇일까.

지난해 4월 강동 온누리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천호동 일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쌀 나눔’ 행사를 했다. 그때 공해룡 성도의 집을 방문해 복음을 전했다. 공해룡 성도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 없고,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도 수료했다. 70평생 처음으로 새벽기도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의 삶은 곡절이 많았다. 운영하던 회사가 두 번이나 부도가 났다. 삶이 점차 피폐해져갔다. 그는 계속되는 위기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다.

지난해 3월 27일 새벽 2시경.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교회에 가야겠구나.”

그 다음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집을 방문하려는데 관장님께서 전화였다. 할렐루야. 바로 수락했다. 강동 온누리교회 청년부 자매 3명과 형제 1명이 와서 온누리교회를 소개해줬다. 공해룡 성도는 그때 집을 방문해 준 청년들을 ‘영적 자식들’이라고 부른다. 고마움을 말로 다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70평생 오직 나를 위해 살았다면 남은 인생 예수님과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신앙은 단단했다. 남은 삶을 예수님과 이웃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의 고백 앞에 숙연해졌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그의 신앙이 또 자랐다. 한평생 부와 명예를 쫓

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게 되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고 싶지 않겠다고 고백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깊어졌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 덕분이라고 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그의 손에 조그마한 쪽지가 들려있었다. 그 쪽지에는 새벽기도회 설교 말씀과 자신이 실천할 내용들, 기도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팔복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내 자신을 소금처럼 녹여라. 꼭 행위만을 생각하지 마라. 회심 신앙으로 돌아가라.”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그의 사고방식도 바꿔놓은 것이다. 기도하는 방법도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순 식구와 가족, 교회,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동생들은 6남매 중 장남인 그가 무서워 교회 다닌다는 것도 말하지



공해룡 성도가 새벽기도할 때 마다 쓴 메모.

못할 정도였다. 그런 그가 완전히 달라졌다. 역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이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신앙 선배들을 찾아서 3

종순일 목사와 주문도

종순일 목사는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는 의미로 이름을 바꿨다. 빛을 탕감해주고,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 썼다. 아무것도 없이 전도여행을 다녔다. 순전한 믿음을 보여준 종순일 목사의 발자취를 찾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진촌교회(현 서도중앙교회)를 다녀왔다.

종순일 목사는 강화도 홍의교회 출신이다. 1896년 마을 훈장이던 박능일이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고, 서당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홍의교회의 시작이다. 박능일의 전도로 예수를 믿은 마을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서 이름을 바꿨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새 이름을 짓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마을에서 처음 믿었고, 한낱한시에 함께 믿어 한 형제가 되었으니 한 일(一)자로 돌림자를 쓰자.”

그렇게 해서 마을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진 애(愛), 신(信), 능(能), 순(純), 충(忠), 봉(奉), 은(恩), 경(敬) 중에 하나씩 뽑았다. 그렇게 마을에 복음을 전한 훈장은 박능일이 되었고, 다른 교인들도 김경일, 권신일, 장양일, 주광일이 되었다.

그들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순전한 믿음을 보여줬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종순일(種純一)이다. 종순일은 부자였다. 마태복

음 18장 23절에 나오는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고도 일백 데나리온 빛을 탕감해 주지 않은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 자신에게 빛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빛 문서들을 불태워 없앴다. 1900년 4월의 일이다. 종순일의 빛 탕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태복음 19장 16-30절에 나오는 부자청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에 기부했다. 1917년 안수를 받은 종순일 목사는 주문도 진촌교회에 부임했다. 종순일 목사가 고향마을에서 17년 전 했던 빛 탕감 잔치를 그대로 재현했다. 당시 교회와 마을 유지였던 박두병, 박순병에게 2천원(현 시세로 1~2억 원)의 빛을 진 성도가 있었는데 아들에게 빛을 고스란히 남긴 채 별세했다. 부친의 빛을 갚기 위해 아들은 8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16원 밖에 모으지 못했다. 그는 종순일 목사와 박씨 문중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종



종순일 목사가 시무한 주문도 진촌교회.

순일 목사가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을 읽고, 자리에 있던 이들이 빛을 탕감하기로 결단했다. 다른 사람들의 빛까지도 모두 탕감해줬다. 주문도 사람들이 교회에 감동한 일은 말할 것도 없다. 더욱 신실한 교인들로 거듭난 그들은 1923년 교회당을 세우면서 일인당 일원씩 헌금해 7천원을 마련했다. 그 돈으로 예배당을 세웠다.

지난 28일 주문도 진촌교회를 방문했다. 주문도는 강화 외포항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삼십여 분을 들어가야 하는 외딴 섬이다.

교회 건물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기품 있는 한옥기와가 돋보였다. 정면 5칸, 측면 7칸 도합 30칸으로 구성된 전통 한옥이었다. 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두 개다. 오른

쪽은 여자, 왼쪽은 남자들이 드나들었다. 지금도 이곳에서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다.

건축 당시 목재와 기와는 황해도 해주에서 운반해 왔다. 바닷가에서 공사현장까지 실어 나르던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달구지를 끌던 소 두 마리가 죽었다고 한다.

주문도에 사는 주민 130여 가구 중에 85가구가 진촌교회(현 서도중앙교회) 등록교인이다. 마을주민 65%가 크리스천이다. 종순일 목사가 시무할 때에는 75%였다고 한다. 그곳에는 노래방도 술집도, 다방도, 굿판도 없다. 주문도가 신앙청정구역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빛 탕감 잔치를 벌인 종순일 목사의 신앙이 깃들여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첫 아프리카인의 구원

사도행전 8:26~40

“우리가 빌립이 되고, 이 시대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이미 알고 있는 관계를 통해 복음을 듣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알지 못했던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친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뜻밖의 만남은 낯설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잘 아는 관계인지, 모르는 관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관리의 만남

오늘 본문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빌립과 에티오피아 재정관리인이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아프리카인이 처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가는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빌립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질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26절).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빌립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광야로 가라는 지시입니다. 빌립이 하나님께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해석되지 않는 발걸음을 뚫 수 있습니다. 아

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길을 가야합니다. 만약 성령님이 그곳에 가면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순종하기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말씀해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다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라고 생각했다면 빌립은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불순종해서 쓰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마음 속에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걸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역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부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구체적이고, 섬세한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말성경에는 “남쪽으로 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일어나 정오쯤 가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일어나 태양이 정남쪽에서 비추는 정오에 가라”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빌립에게 아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알려 주셨습니다. 왜 그 시간이고, 왜 그 장소일까요.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 더 빨리 가도 안 되고 한 시간 늦게 가도 안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왜 보내셨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기신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가 아닙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당시 ‘아비시니아’라는 나라로 불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당시 애굽의 남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애굽과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의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지도로 보면 수단에 가깝습니다. 구약에는 ‘구스’라고 불렸고 함축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초입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애굽의 바로, 로마의 시저도 호칭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왕은 당시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었기에 세상의 일을 하면 안 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일은 여왕, 어머니가 담당했습니다. 그 직함이 바로 간다게입니다.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의 관리는 오늘날 재무부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재무를 책임지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신임을 받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엘리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기록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재무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27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지금의 수단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여행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멀고 위험할 수도 있는 거리를 국가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갔습니다. 이 여행을 위해서 왕으로부터 특별휴가도 받아야 했을 것이고, 자신의 일도 내려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러 갈 정도로 이 여행을

중요하게 여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은 주변나라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보십시오. 율리관이 탁월합니다. 높은 수준의 법의식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 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 정신과 원리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개종하고, 유대인이 되겠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신분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절기가 되면 이방인이지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밖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거기까지라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유대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마차 안에서 구약을 읽을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전부 사본이었습니다. 제본된 책이 아니라 두루마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돌돌 말려 있어서 한번 읽으려면 펼쳐야 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의 시험은 그것을 모두 외우는 것입니다. 언제 말았다가 뺐다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통째로 외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사본 자체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달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 사본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인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언어적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알기 위해서 언어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고, 진지한 열정을 가진 사회적 엘리트였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남쪽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광야에 나갔을 때 멀리서 마차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차 안에 두루마기를 펴서 무언가를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관리를 보았습니다.

(13면에 계속)

신년기획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선교지

- ▶ 이주민과 이주민교회
- ▶ 난민
- ▶ 불어권 선교

이주민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 다문화사회 진입 ... 이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주민교회, 지역교회, 대형교회를 연결하는 선교시스템 개발해야



임광순 장로
(찬양공동체)

이주민이라는 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통칭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179만 명(2015년 12월 기준)이다.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충청북도 인구 158만보다 많다. 2006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수가 54만 명이었는데 매년 13만 명씩 꾸준히 증가해 2015년 12월 기준으로 179만 명이 되었다. 학계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5%가 넘으면 '다문화사회'라고 한다. 이주민증가율과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안산(11.8%), 시흥(11.5%), 포천(9.9%), 화성(7.6%)이다.

하나님은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산업인력으로 들어오고, 수많은 외국인 청년들이 K-pop의 영향을 받아 한국문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어려서 우리나라를 동방의 작은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 식민 지배를 받던 피지배국가 등 환경적으로 보잘것없던 나라라고 배웠다. 베들레헴처럼 작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 왜 수많은 이주민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게 하셨을까. 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로 만드셨을까. 필자는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국적이 무려 201개국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래야 끝이 올 것이다”(마 24:14).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9~20).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끝 나라들의 민족들을 모으고 계신다. 필자는 온누리교회가 세계선교의 선봉에 서있다고 자부한다. 그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국내에 보내신 열방의 민

족들이다.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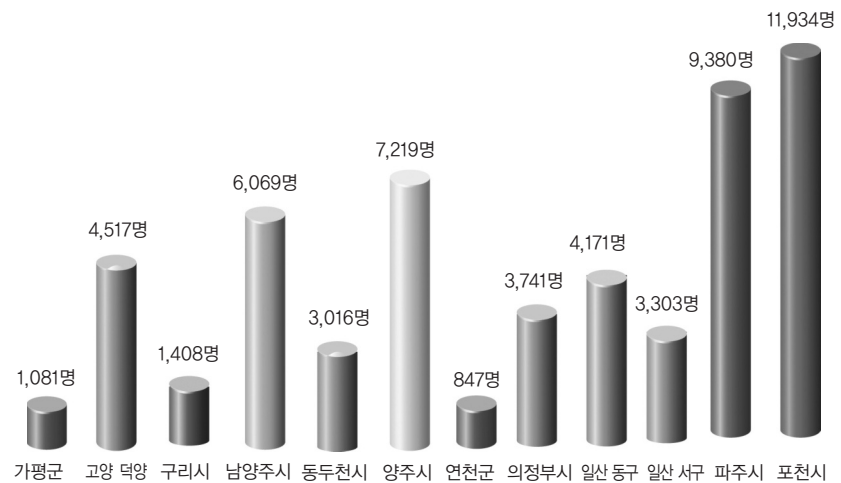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이주민선교 현황과 실태

필자는 지난해 '경기북부 이주민선교 포럼'을 추진하면서 경기북부 8개시 이주민교회 32곳을 다니면서 이주민교회 현황과 실태를 조사했다. 이주민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이주민교회 선교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한국교회 각 교단으로부터 선교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지원도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과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봉사자 부재, 한국교회의 외면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주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들은 번 아웃(Burn Out)상태였고, 이주민 선교 비전만 생각하기에는 주어진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이주민선교를 위하여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각 개전투식 사역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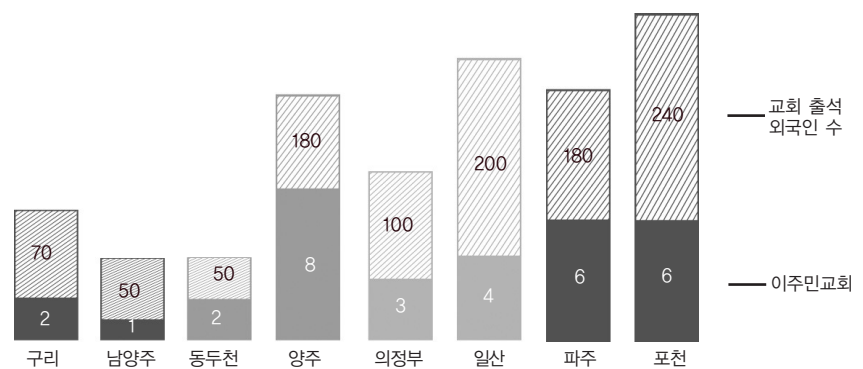
필자가 조사한 경기북부 8개시의 이주민교회는 32개(누락된 곳도 있을 수 있음)였으며 선교화율(교회에 나오는 외국인 수/국내체류 외국인 수)은 2% 미만이었으며 그것도 교회에 나오는 이주민들은 불법체류자가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보면 선교화율은 더욱 낮아진다. 이주민교회 32개 중 1/3이 외국인 교인 수가 20명 미만이었다. 1/3은 50명 내외, 나머지 1/3은 60~90명이었다. 그마저도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공장의 환경에 따라 예배 출석인원이 들쭉날쭉했다. 봉사자 수도 터무니없었다. 1/3은 2명 이내, 1/3은 3~6명, 1/3은 지역의 큰 교회가 운영해서 봉사자 수가 조금 여유가 있었다. 운영비 조달은 파송교회, 개인후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들의 수입이었다.

이주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었다. 전에 이주민선교를 했던 교회들도 사역을 포기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주민선교를 포기한 지역교회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지원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형교회들도 그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주민선교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 외국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몇 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도 안산 M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4개 예배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이주민선교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 이주민선교의 방향이 몇 개 예배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이주민교회들을 품어주고, 세워줘야 한다. 그들이 비상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경기 북부 지역 외국인 등록현황(2015.6기준)



경기 북부 이주민교회 및 출석 외국인 수



무엇을 하는 선교(For Church)에서 함께하는 선교(With Church)로!

이주민선교의 해답은 선교현장에 있다. 가장 먼저 이주민교회를 세워줘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맞는 찬양과 악기들을 보급해주고, 다양한 예배기법들도 전수해줘야 한다. 그들이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한다. 통역 지원, 예배 환경 조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주민교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매주는 아니더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이주민선교를 돕는 길이다. 선교학에서는 그것을 'With Church(함께 하는 선교)'라고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For Church(무엇을 하는 선교)'라는 가치에 집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직에 관심을 더 두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때문에 이주민교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주민교회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나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다. 운영비 지원보다 기도부탁을 더 많이 한

다. 이주민교회들이 온전히 외국인들을 구원하는 비전을 품고, 몸 바쳐 땀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선교현장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해 주는 전략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형교회와 지역교회, 이주민교회를 연합시키는 '선교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주민교회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지역교회들도 이주민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전문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형교회들은 물질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주민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처음 선교할 때 지역을 구분해 선교했던 것을 참고하면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다. 인근에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이 있다. 이곳은 영세한 산업단지가 많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주말에 산업단지 근처 상권이 형성된 곳에 가보면 한국사람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다. 중국,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등지에서

이주민선교가 산다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2014년 필자는 찬양공동체 대표장로서 여름 아웃리치 지역을 물색하던 중에 경기도 양주지역 이주민교회 선교사들이 이주민을 위한 선교음악회를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주향한찬양사역팀이 라오스 아웃리치를 추진하다 현지사정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 이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자비량으로 계획했다. ‘Blessing yang-ju’를 주제로 음악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음악회를 준비하다 보니 이주민 동원 능력이 부족했다. 100명도 채우지 못할 형편이었다. 인근 이주민교회들의 참여도 불투명해서 필자와 동역자 1명이 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지역 이주민교회를 찾아다니며 참여를 호소했다. 지역교회 성도들의 참여도 권유했다. 이주민교회들과 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의 협조를 받아 거리전도도 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주민을 위한 선교음악회 ‘Blessing yang-ju’를 개최했다. 5개 이주민교회에서 외국인 200여 명과 예향교회 성도 3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여곡절 끝에 음악회를 마치자 장소를 제공해 준 예향교회 담임목사님께서 3년 동안 이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열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음악회를 열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필자는 이재훈 담임목사님께 음악회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3년 동안 이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목사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하셨다. 음악회를 열기 위해서 2015년 1월부터 정기기도회를 시작했다. 그런데 모이는 사람이 고작 4명뿐이었다. 이주민선교사 2명, 필자, 필자와 동역하는 전도사가 전부였다. 2014년에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들도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위기였다. 아무런 성과없이 2-3개월이 지나니 서서히 절망감이 들었다. 유일한 동역자였던 전도사님도 목사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청빙 되어 떠났다. 이제 필자만 남았다. 후회가 되었다.

너무 답답해서 선교세미나에 참석해 강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물었다. 그 강사는 “With Church(함께하는 선교)하면 이주민교회 선교사들이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그날 이후 ‘With Church(함께하는 선교)’를 몸소 실천했다. 이주민교회를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교제를 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주민교회의 실태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걱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주민을 위한 음악회가 점점 다가오는데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 마음이 조급해졌다. 음악회를 포기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던 중에 성가대원 한명이 순장사관학교에서 아웃리치를 갈 곳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급히 순장사관학교 팀장을 만났다. 마침 잘 아는 집사님이었다. 다짜고짜 이주민교회 명단을 내밀면서 이주민교회로 아웃리치를 가줄 것을 부탁했다. 얼마 후 이주민교회 선교사들로부터 온누리교회 순장사관학교에서 아웃리치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음악회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순장사관학교 아웃리치에 대한 평가도 들을 겸 이주민교회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만났다.

먼저 순장사관학교 아웃리치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5개 팀이 5개 이주민교회를 섬겼는데 각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지극히 섬겨줬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선교의 진정성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다. 음악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나는 온누리교회 찬양사역담당장로서 이주민선교음악회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돕지 않는다면 음악회를 포기하고 이주민선교는 원래 이주민사역담당인 M센터 목사님께 맡기고 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이주민교회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음악회 추진위원장도 선임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5개 언어권 교회들이 음악회에 참여하겠다는 다짐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음악회 이름도 ‘Blessing Migrant Concert’로 정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

32개 이주민교회를 가다

경기북부 이주민선교포럼을 하게 됐다. 음악회 추진위원장께서 음악회 전에 이주민선교포럼을 먼저 하자 제안하며 선교사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셨다. 필자는 그동안 만났던 선교사들을 불러 모았다.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각 주제의 발제를 맡았고 그 포럼에서 필자에게 경기북부 이주민교회 현황과 실태를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미 나는 경기북부 10개시 중에 5개시의 이주민교회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요청에 응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지역교회 연합회에서도 이주민교회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

고 있었다. 자료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이주민을 섬기고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어 이주민교회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렇게하여 32개 이주민교회 현황과 실태를 파악했다. 필자가 파악한 이주민교회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 정리하니 그것이 바로 경기북부 지역 이주민선교 지도였다. 음악회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만들 수 있었고, 이주민교회의 연합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015년 하반기에도 순장사관학교에 이주민교회로 아웃리치를 가줄 것을 부탁했다. 순장사관학교 팀장님께 이주민교회 명단을 주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웃리치 지역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파주, 일산지역 이주민교회 5곳, 동두천, 의정부 각 1곳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하나님께서 이주민선교에 대한 지경을 넓혀 주셨다.

이주민 위한 선교음악회 그 후

드디어 이주민 선교음악회 ‘Blessing Migrant Concert’가 개최되었다. 11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주민들이 구경만하는 음악회가 아니었다. 그들도 함께 참여하는 음악회였다. 함께 춤추고, 노래했다. 이주민들과 이주민교회 선교사들이 너무 좋아했다. 인원동원, 수송, 진행, 안내 등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진행되었다. 당초에는 300명을 예상하여 좌석도 300석으로 맞추어 놓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좌석을 추가 배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열방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렸다. 음악회 이후에는 이주민 선교사들의 모임도 만들어졌다. 이주민 선교사들 스스로 정기기도회, 포럼, 체육대회 등을 계획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하나님이 필자를 이주민 현장에 살게 하시고, 필자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통해 이주민 선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더 기도하게 하셨다. 이주민선교의 퍼즐을 맞춰 가고 계셨다. 필자는 앞으로 동역자들과 이주민선교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이주민을 섬기는 교회들을 섬길 것이다.

이주민교회가 살아야 이주민선교가 산다. 마지막으로 온누리교회 각 공동체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온누리교회 각 공동체가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섬기듯이 국내 이주민교회를 지정해 섬겼으면 좋겠다.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자주 찾아가는 것이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With Church다. 또한 이주민선교를 담당하는 온누리M미션이 이주민교회와 지역교회, 대형교회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모두 함께 이주민선교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특집_온누리교회 선교를 말하다

1. 선교사 간증집 발간
2. 2015 선교헌금 결산
3. 2016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

“온누리교회 선교, 질적 성장이 필요한 때”

27개 선교기관 협력하고, 연합하는 ‘융합선교 시대’ 연다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와 함께

1월 3일과 10일 ‘2016 선교헌금 작성행사’가 열린다. 온누리교회는 해마다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 작성행사를 열고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뜻 깊은 행사다.

2016 선교헌금 작성행사를 앞두고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를 만났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를 되돌아보고, 올해 선교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먼저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선교에 동참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73개국 854명의 선교사님들을 변함없이 후원하고,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것은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헌신이 이어지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선교로 새해를 여는 2016년도에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난해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이었습니다. 따라서 2000선교본부도 과거 30년의 온누리 선교를 평가하고, 앞으로 30년의 선교방향을 잡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당회 안에 선교분과위원회 장로님들과 함께 많은 토론과 리서치를 통해 ‘융합선교’라는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도출해 내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융합선교는 그동안 각 선교부서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해오던 사역을 이제 함께 연합하고, 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내는 선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선교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의 돌파를 만들어 보자는 선교전략입니다. 아직 낮은 개념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차차 뿌리를 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양지 Acts 29 비전빌리지에 하용조 목사님 기념관이 건립되고, 기념 도서관을 정비했고, 현재 숙소동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하고 있습니다. 황종연 목사님이 새롭게 원장으로 부임해 선교 훈련 프로그램과 훈련 스태프들을 새롭게 정비한 것도 큰 변화입니다.

또 온누리교회는 그동안 러브소나타, 일본 CGNTV, 두란노서원, 일본 비전교회 등 일본선교에 많은 힘을 쏟아 왔습니다. 이에 지난 6월에 동경에서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일본교회 러브소나타 실행위원들이 모여 그 동안의 사역을 평가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일본선교의 방향을 의논하는 러브소나타 포럼을 개최한 것도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10월에는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와 가족 270여 명을 초청해 성도님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사역보고와 간증도 들었습니다. 또한 온누리교회 27개 선교부서와 단체가 모두 모여 지난 선교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융합선교를 준비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에는 설악산 컨벤션 호텔에서 ‘KGMLF’라는 선교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국내외 권위 있는 학자들과 선교 리더십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온누리교회 선교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온누리교회 선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세계적인 학자들과 선교 리더십들이 온누리교회 선교에 대해 매우 놀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선교 현장에서도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난 30년의 선교사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 앞으로 30년의 방향을 잡은 것이 가장 큰 열매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온누리교회 선교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예수바보행진’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표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교적 비전이 없을 것입니다. 온누

리교회 선교가 지금까지 양적인 성과를 거뒀다면 올해부터는 질적인 성숙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 표어를 이해합니다. 그 동안 2천1만 비전과 Acts29 비전을 바탕으로 열방을 향해 달려왔는데, 이제 선교의 질적 성장을 고민하겠습니다. 위험한 교회, 낮은 교회, 연약한 교회가 하는 선교의 틀을 잡는 한해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2016년은 ‘융합선교’가 자리 잡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온누리교회 모든 선교 부서들이 최선을 다해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각 부서가 낮은 마음으로 서로의 주도권을 양보하고, 연합하고, 융합해서 선교지의 실질적인 필요를 돕는 선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준비된 좋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선발 시스템과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 선교가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해서 양적인 축소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온누리교회 선교가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게 선교사 돌봄이나 훈련, 사역지원 등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융합선교를 한다는 것도 개별적인 사역을 축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기관들과 연합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역계획이 궁금합니다.

“2016년에 양지 훈련센터 내 숙소동이 확충되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해 온누리교회 목회 프로그램과 선교를 배우게 하는 비타민 C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 등지에 구체적인 융합선교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러브소나타



이후 어떤 사역으로 일본 복음화를 도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본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모일 것입니다. 일본선교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현지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일본복음화의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선교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1억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콘텐츠와 목양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전략을 짜고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온누리M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주근로자, 해외 유학생, 난민문제 등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안산에 온누리M센터를 새롭게 건축 중에 있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면 국내 외국인 이주민선교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2030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근로자가 500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이주민 선교를 다시 점검하고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15개 미전도 종족 사역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복음이 없는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어왔습니다. 15개 종족 중 이미 복음이 전파된 종족과 아직 전파되지 않은 종족을 파악해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겠습니다.

TIM을 중심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NGO 더멋진세상도 전 세계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재난과 질병, 가난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와 2000선교본부가 선교사님들을 최대한 지원해드리려고 했지만 돕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현장에서 복음전파를 위해 끝까지 헌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온누리교회가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73개국에서 854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계속 기억해 주십시오. 2016 선교헌금 작성행사에도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선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장면선교’ 를 아시나요?

온누리교회, 은혜짜장선교단과 함께 울곡대대를 가다

여기 특별한 전도방법이 있다. 이름 하여 ‘군부대 짜장면선교’다. 장병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고, 복음도 전하는 탁월한 전도방법이다. 지난 27일에도 군부대 짜장면선교를 다녀온 이들이 있다. 은혜짜장선교단과 온누리교회 강찬석 장로, 권오혁 장로, 김경철 장로, 박구병 장로, 서병화 장로, 이규성 권사, 최종순 권사, 강성희 집사, 이기범 집사, 이희준 집사가 그 주인공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지난 27일 이른 아침 여기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군부대 짜장면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한 시간 반을 달려 울곡대대에 도착했다. 울곡대대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울곡1리에 위치해 있다. 병사 580명이 생활하고 있다.

울곡대대 울곡교회 김영필 목사가 일행들을 반겼다. 온누리교회와 울곡교회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영필 목사가 울곡교회에 부임한 2014년 8월 당시만 해도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바닥에는 벌레들이 기어 다니고, 전장에서는 물이 툭툭 떨어졌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예배드리는데 겨우참았다. 목사 사례비도 없었다. 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온누리교회 강찬석 장로를 만났다. 그렇게 울곡교회와 온누리교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교회시설을 탈바꿈했다. 조명도 바꾸고, 배수시설도 수리했다. 음

향시설도 설치해줬다. 시설이 바뀌자 병사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20~30명이 참석하던 예배에 이제는 120명이 참석한다. 군교회를 섬기는 군종병도 23명이나 된다. 그때 그 인연이 이날 군부대 짜장면선교로 이어졌다.

군대에서는 네 가지(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초코과자와 빵을 먹기 위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옛날이야기이다. 요즘은 햄버거 정도는 쥐야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 최근에는 무종교도 종교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병사들도 늘고 있다.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각 종교에서 주는 특식은 해당 종교 활동에 참석해야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짜장면선교는 부대 모든 병사에게 제공된다.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군부대 짜장면선교는 은혜짜장선교단(김종교 전도사)이 처음 시작했다. 이날도 은혜짜장선교단이 함께 했다. 김 전도사가 짜장면을 만



군인들에게 짜장면을 배식하고 있다.

들고, 온누리교회 짜장면선교팀은 짜장면 만드는 비용과 위문공연을 준비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병사들 앞에 푸짐한 짜장면 한 그릇이 놓였다. 이날 배식을 맡은 온누리교회 봉사자들이 짜장면을 얼마나 푸짐하게 퍼주는지 장병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그 시각 주방 안은 전쟁터다. 웬만한 성인키보다 큰 주걱을 휘젓는 사람이 보였다. 은혜짜장선교단 대표 김종교 전도사다. 그가 바로 전국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짜장면선교를 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올해만 군부대 80군대를

방문했다. 점심식사가 끝날 무렵 혼자 짜장면을 먹는 장병이 보였다. 왜 혼자 먹고 있냐고 묻자 “오늘 교회에서 짜장면을 준다는 소식에 미사가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달려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짜장면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병사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을까.

이날 은혜짜장선교단과 함께 군부대 짜장면선교에 동참한 온누리교회 봉사자 일행은 장병들에게 짜장면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사랑도 전했다. 그 모습보고 장병들 스스로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한국 문화 체험하고, 사랑도 나누고

S브릿지공동체, 재한몽골학교 학생들과 기차여행

재한몽골학교 학생 150명이 강원도 춘천으로 기차여행을 떠났다. 온누리교회 S브릿지공동체 봉사자 65명도 함께 했다. 이날 S브릿지공동체 봉사자들은 한국문화 전도사를 자청하고 나섰다. 재한몽골학교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다. S브릿지공동체 봉사자들과 재한몽골학교 학생들은 함께 김유정 문학촌에 가고, 닭갈비도 먹고, 레일바이크도 탔다. 그 현장에 동행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재한몽골학교 학생들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들이다. 어머니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다문화가정도 있다. 그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S브릿지공동체 봉사자 65명이 나섰다. 지난 26일 재한몽골학교 학생 150명과 함께 춘천으로 기차여행을 갔다.

춘천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학생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다.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이날 행사를 몹시 기대하는 눈치였다.

첫 번째 행선지는 김유정 문학촌이다.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김유정역에 도착

했다. 이곳이 바로 <봄·봄>, <동백꽃> 작가 김유정의 고향이다. S브릿지공동체 봉사자들은 재한몽골학교 학생들에게 소설가 김유정을 소개했다.

김유정의 문학과 생애를 생생하게 들려줬다. 예술적 열정과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작가 김유정을 눈앞에서 만나는 것 같았다. 온갖 역경을 극복한 몽골인들의 모습과 어딘가 닮아있었다. 그래서인지 재한몽골학교 학생들은 김유정 문학촌에 큰 관심을 보였다.

두 번째 행선지는 춘천의 명물 닭갈비집이



S브릿지공동체와 몽골 학생들이 레일바이크를 타고 있다.

다. S브릿지공동체 봉사자들이 재한몽골학교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한국음식은 닭갈비였다. 재한몽골학교 학생들은 닭갈비를 정말 맛있게 먹었다. 직접 주걱을 들고 볶기도 했다.

마지막 행선지는 강촌 레일바이크였다. 한국의 놀이문화를 소개하는 순서였다. 레일바이크는 기차레일 위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자전거다. S브릿지공동체 봉사자들과 재한몽골학교 학생들이 함께 4인용 자전거를 탔다. 팔

미터널, 의암터널, 천상의 은하수터널 등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했다. S브릿지공동체 봉사자들과 재한몽골학교 학생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S브릿지공동체는 재한몽골학교 학생들과의 겨울기차여행을 석 달 전부터 기획했다. 그만큼 S브릿지공동체가 금호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독거노인, 다문화 학생, 탈북민들을 찾아가 섬기고 있다.

대학청년부 CH630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열린 공동체”

참여, 공감, 자유, 열린 예배가 키워드

대학청년부 CH630공동체 예배에는 4가지 키워드가 있다. ‘참여, 공감, 자유, 열린 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그 4가지 키워드가 CH630공동체를 가장 잘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H630공동체 예배에 4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CH630공동체는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예배처소가 젊음의 거리에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구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모든 세대에 열어있는 예배라는 의미에서 ‘열린 예배’라고도 지칭한다. CH630공동체는 주일 저녁 6시30분에 예배를 드린다. 매주 다른 콘셉트로 예배를 드린다. 연극, 뮤지컬, 댄스컬, 코미디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열정과 에너지는 물론 생동감이 넘치는 CH630공동체 예배를 소개한다.



● 참여하는 예배

CH630공동체는 모두가 주인공이다. 참여하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연극자가 아니어도 무대에 오를 수 있고, 작가가 아니어도 대본을 쓸 수 있다. 조명과 영상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주인공이다. 무대에서 공연하는 팀들뿐만 아니라 공연을 보는 관객들도 모두 주인공이다.

지난달 27일 예배에서는 팀카리스(Team Karis)팀이 댄스컬(Dancecal)을 선보였다. 댄스컬은 춤과 뮤지컬을 결합한 장르다. 이날 예배에서 팀카리스팀은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현대판 마리아로 재해석했다. ‘댄스컬 마리아(Dancecal Mariva)’는 권력, 돈, 명예, 사랑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사회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김누리 자매는 “댄스컬 마리아를 보면서 세상의 물질과 권력, 명예가 부질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 공감하는 예배

CH630공동체 예배는 ‘이야기가 있는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공감이다. CH630공동체 예배는 문화를 도구로 청년들에게 다가간다. 청년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에는 ‘결혼합시다’를 주제로 예배를 드렸다. 청년들의 결혼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메시지를 다양한 공연에 담아냈다. 주제는 다섯 가지였다. 첫째 주는 ‘결혼할까요?’, 둘째 주는 ‘혼자만의 사랑’, 셋째 주는 ‘합치면 하나’, 넷째 주는 ‘시소게임’, 다섯째 주는 ‘다솜은 사랑’을 주제로 극을 올렸다. 극 초반에는 연극과 풍트를, 후반에는 양재경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연극에 재능 있는 청년들이 직접 대본을 썼고, 직접 배우가 되어 연기를 했다. 모두 함께 웃고 울었다.

CH630공동체 박해림 자매는 “연극을 만들면서 청년들의 현실과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애고민에 대한 내용을 청년들이 연기하고 있다.



● 자유로운 예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CH630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CH630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청년들 스스로 재능, 시간, 물질을 드러 청년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예배공동체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교역자와 청년들과 성도들이 의견을 모아 한 주 한 주 예배를 기획했고, 문화공연을 준비했다.

박해림 자매는 “청년들이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한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연극으로 풀어내면서 청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열어있는 예배

CH630공동체의 또 다른 매력은 갓 태어난 아기부터 청년, 80대 백발노인까지 누구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공동체다. 그만큼 모든 이에게 열어있는 예배다.

특정 연령층을 구분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래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연인, 친구, 가족 누구와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 모두 함께 참여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예배가 CH630예배의 장점이 아닐까. 그래서 CH630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 열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목회칼럼 이서진 목사(CH630공동체)

사랑이 스며들고, 친구 되어주는 공동체

“사랑이라는 것은 빠져드는 것인 줄 알았는데, 스며드는 것인지 몰랐다”

1998년 개봉한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에 나온 대사가 기억에 납니다. 이 대사처럼 CH630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드는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로는 젊은이들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학로에

서 예배드리고 있는 CH630공동체가 청년들에게 기독교 문화와 영적인 공급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많이 팔린 이유도 사람들이 용기 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CH630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시대 영혼들에게 사랑이 스며들고, 친구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1월에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보고,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CH630공동체는 문화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준비하는 리더십과 스태프들이 함께 모

여 기도하고, 예배와 말씀을 공유하며 아이 디어를 나누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 창조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CH630공동체 예배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CH630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6시 30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의 흔적을 찾아서 9



이기훈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아이젠나흐(Eisennach)는 루터와 바하를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을이 아담해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이 마을에서는 네 곳을 꼭 방문해야 한다.

먼저 방문할 곳은 바하의 출생지로 알려진 ‘바하 하우스’다. 이 박물관에는 바하의 많은 작품들과 그 시대에 사용했던 악기들이 전시돼 있다. 각 개인이 바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도 잘 준비되어 있다. 특히 바하 시대의 복장을 한 안내인이 영어와 독일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당시의 악기들을 연주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바하의 음악세계를 더 깊이 맛볼 수 있다. 바하의 얼굴이 새겨진 책갈피나 머그컵이나 그의 음악이 담겨져 있는 오르골을 구입해도 좋다.

두 번째 방문할 곳은 루터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1498년부터 1501년까지 3년 동안 머물렀던 하숙집이다. ‘루터 하우스’라고 불린다. 루터는 그 지역에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이 집에서 하숙을 하였다.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청소년기를 보냈던 이곳을 좋아했고 그리워했다고 한다.

세 번째 방문해야 할 곳은 게오르그교회(Georgienkirche)이다. 라이프치히 논쟁 이후

루터의 개혁 정신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었고, 비텐베르크에서의 95개 조항의 반박문 발표가 개혁의 열기를 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가톨릭교회에 대한 백성들의 적대감이 고조되자 이에 위기를 느낀 로마 교황청은 황제 카를 5세에게 1521년 3월 보름스(Worms)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하도록 강요하였다. 친구들은 참석하지 말 것을 간곡히 권유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소환에 응했다가 변론도 못해보고 화형당한 윌리엄 틴델(William Tyndale)이나 안 후스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유명한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를 부르면서 보름스를 향한 700km의 대장정에 올랐다.

4월 16일 저녁 보름스에 도착한 루터는 다음날 자신의 저서들이 쌓여져 있는 회의장에 참석해 카를 5세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 “이 책들이 당신이 쓴 책들이 맞소? 이 책들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철회할 수 있겠는가?”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다음날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소.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소.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소.” 그리고 나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결국 루터는 5월 26일 로마 교황청의 강요를 받은 황제로부터 ‘보름스 칙서’에 근거해 파면되고, 그의 모든 저서들은 불태워지고 만다. 루터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자들은 엄히 처벌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게오르그교회를 나오면 광장 건너편에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광장

루터와 바하의 마을 ‘아이젠나흐’



바트부르크 성내.

을 내다보며 먹는 아이스크림의 맛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네 번째 방문할 곳은 바트부르크(Wartburg) 성이다. 루터는 보름스 회의에서 진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톨릭교회 측으로부터 살해위험을 받았으나, 프레드리히 대제가 보낸 군인들의 호위 덕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는 가톨릭 특공대를 가장하여 루터를 납치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 성으로 데리고 와 10개월 동안 머물게 하였다. 이 성은 루터의 10개월 생활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루터가 번역을 하면서 생활했던 방이 잘 보존되어 있다. 루터는 이곳에서 헬라어로 된 신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와 뮐랑히톤의 도움을 받아 히브리어 성경을 원본으로 구약성경을 출판하

게 된다.

루터가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원본으로 삼았던 이유는 당시 가톨릭교회가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성에서 내려다보이는 아이젠나흐와 시골의 풍경들은 참 아름답다. 가능하다면 성 안에 있는 카페에서 스프와 빵, 커피를 마시면서 루터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참 운치가 있다. 루터는 성경 번역하는 일 외에 이 성에서 10개월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떤 비전을 품었을까?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글은 이기훈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신앙의 흔적을 돌아보고 쓴 글입니다. 10회 연재합니다.



목회칼럼 김정순 목사(부천 온누리교회)

현실 직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문화심리학자 하태균 교수의 책 〈어쩌다 한 국민〉은 요즘 한국인들을 잘 간파했다. 이 책은 집단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믿기 전후가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요즘 한국 사람들을 중2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한다. 중2병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춘기 소년을 표현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삶의 만족과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졌다.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게 됐다.

이 책에서는 “사춘기는 평생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앞으로 10년 정도 혼란을 겪고 나면 갈 길을 찾아 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지금의 헬조선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스스로가 만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남이 변해야 하고, 정부가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강변한다.

이어령 교수는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에서 기술 자본주의에 주력했던 패러다임에서 생명 자본주의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새 시대는 후기 산업사회와 지식사회를 지나 생명 자본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빛과 생명과 사랑이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시대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진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한국인들이 길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그도 하태균 교수처럼 한국이 지금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에고(ego)가 생기는 시기로 보았다. 또한 그는 한국인들을 타인지향적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했다. 허세와 허영심,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을 가리

켜서는 자아가 빈곤하다고 했다.

이어령 교수는 〈딸에게 보내는 곳나잇 키스〉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느낀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령 교수는 자신이 사라지는 영적죽음을 경험했다고 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딸이 육신의 아버지 구원을 위해 늘 간구했다. 딸은 아버지가 아무리 바빠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 떠나기 몇 개월 동안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했다. 이어령 교수는 부녀의 마음의 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표현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은 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헬무트 틸리케는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현실과 믿음 사이의 괴리감을 ‘초현실주의’로 풀어냈다. 초현실주의는 비움으로 달관하는 태도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역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주옥같은 팔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인생을 산 인물들과 팔복의 말씀이 이 번 새벽기도회의 핵심일 것이다. 그 시간을 통해 매일 새벽, 새롭게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어쩌다 한 국민〉에서처럼 중2병에 걸린 한국인과 타인지향적인 한국인의 모습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산상수훈 말씀에서 인생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로 던져졌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고 믿으면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딤후 1:5)고 고백하기를 소망한다.

오이타 교계, 러브소나타 후속 활동 활발

크리스마스 전도집회, 촛불예배, 가스펠 콘서트 열어

지난해 10월 28~29일 열린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끝난 후에도 오이타 교계가 활발한 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이타 지역 교계가 연합해 자체적으로 후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웰컴 크리스마스 집회’가 그 선봉이다. 12월 11일 열린 웰컴 크리스마스 집회는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신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200여 명을 초청한 집회다. 이 집회에는 전도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 배안테 보만과 그의 부인이자 피아니스트인 루리코 보만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열매도 맺혔다. 3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선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그레이스채



러브소나타 오이타 실행위원회 교회들이 연합한 촛불예배.

플에서 촛불예배를 드렸다. 촛불예배에는 러브소나타 오이타 실행위원회 교회들이 참석했다. 약 90여 명이 참석해 예수탄생을 축하하고, 교제했다.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년크리스천을 위한 가스펠 콘서트가 열렸다. 한국인

피아니스트 공민과 락포크밴드 사루키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오이타그리스도복음교회 신중한 목사는 “오이타 교계가 러브소나타 집회 이후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간증

러브소나타 오이타 그 후



/ 히로타 가즈마사 목사 (러브소나타 오이타 실행위원장)

오순절 날에 기도드리던 제자들의 머리 위에 약속의 성령이 임하였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외국에서 성장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소동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그들에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음 이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행 2:25-26).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부르짖는 베드로의 외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 초대교회가 탄생한 그 장소는 분명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났을 것이다. 베드로는 분명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우리는 홀트

홀을 빌려 러브소나타 오이타 후속집회를 열었다. 이름 하여 ‘웰컴 크리스마스 집회’였다. 낮 2시와 저녁 7시에 두 번 진행했다. 전도교향악단 주석이자 첼로 연주자인 보만 선교사 부부가 성령의 힘이 느껴지는 연주를 선보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집회가 끝난 후에 여기저기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의 감동이 재현된 것 같은 감동이었다.

이번 집회는 오이타 교계가 하나 되어 준비했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준비하면서 문진 환상적인 팀웍이 이번 행사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때보다 한층 성장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 더욱 감사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는 일본선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기록제가 될립었다.

차세대 동계 아웃리치 떠난다!

JDS Kids, 파워키즈, 중등부, 고등부, FT 6기

차세대가 겨울방학을 맞아 동계 아웃리치를 떠난다. JDS Kids, 파워키즈, 중등부, 고등부, FT 6기가 그 주인공이다. 네팔, 대만, 라오스,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지로 아웃리치를 간다.

서빙고 JDS Kids는 1월 4일부터 11일까지 라오스에서 양계·양돈 솜 공장 사역을, 서빙고 파워키즈는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대만 현지교회에서 문화사역을, 부천 JDS Kids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라오스 초등학교에서 문화·태권도 공연을 한다.

서빙고 중등부는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라오스에서 마을과 교회 사역을 한다. 서빙고 고등부는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네팔에서 센터사역 및 도서관 사역을 한다. 양재 중등부는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 병원, 청소년 사역을 진행한다.

FT 6기 중국팀은 1월 4일부터 25일까지 캠퍼스, 문화, 땅 밟기 사역을 하고, FT 6기 인도팀도 같은 일정으로 어린이, 청소년, 문화, 땅 밟기 사역을 한다.

부천 중고등부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 고아원 사역을 하고, 대전 중등부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고등부는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사역과 마을전도 사역을 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차세대 FT사역팀이 선교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수제자학교(JDS) 개강예배

올해 7개 반 개강, 1월 17일부터 모집

예수제자학교 간사와 스태프들이 지난달 2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렸다. 각 캠퍼스에서 예수제자학교를 섬기고 있는 간사들과 스태프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강예배는 백흥기 장로의 대표기도, 박철웅 목사의 환영인사, 박종길 목사의 메시지, 중보기도, 각 학교 리더십 소개, 교제 순으로 진행됐다.

예수제자학교 담당 박종길 목사는 ‘선한 정치기처럼’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박 목사는 “겸손과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제자학교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며 간사들과 스태프들을 격려했다.

서빙고 주간반 팀장 이명화 성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맛 볼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

도하겠다고” 말했다고, 양재 주간반 총무 이기선 성도는 “우리가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비를 뿌려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양재 주간반이 되도록 힘써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제자학교 캠퍼스별 개강예배는 2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드릴 예정이다(표 참고). 올해 예수제자학교는 총 7개 반이 개강한다. 1월 17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빙고와 양재는 주간반과 저녁반 모두를, 부천은 주간반만, 수원과 인천은 저녁반만 모집한다. 수업은 주2회씩 총 22주 동안 진행된다.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면 임직 필수과정 중 2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문의 02-3215-3625, 353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남양주 온누리 가정세미나 개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노름 웨이크필드(Norm Wakefield)를 초청해 가정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남양주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반석위에 당신의 가정을 세우라’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1월 10일까지다. 회비는 1인 1만5천원. 문의: 050-5504-5404

대학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청년부 1월 8~10일, 대학부 1월 15~17일

대학청년부가 리더십 컨퍼런스를 연다. 청년부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영산수련원 ‘더 원(The One)’을, 대학부 리더십 수련회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제자수양관에서 ‘고(GO)’를 진행한다.

청년부 리더십 수련회에서는 ‘리더십, 비전, 직장, 섬김, 성령, 헌신’을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김승수 목사, 김하중 장로, 김건희 대

표(극단 배우는사람들)가 강의한다. 소울싱어즈와 강찬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대학부 리더십 수련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이상준 목사, 김승수 목사, 최성민 목사, 하형록 목사(탐바스 회장), 김건희 대표(극단 배우는사람들)가 메시지를 전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2016년 예수제자학교 일정>

	캠퍼스	요일	수업 시간	개강	문의
주간반 (여성만 가능)	서빙고	화, 목	10:00~15:00	2월 25일	이명화 010-6295-3474
	양재	화, 목		2월 25일	정선미 010-3772-6780
	부천	목, 금		3월 4일	이정옥 010-5040-3368
저녁반 (남,여 모두 가능)	서빙고	목, 토	목19:00~22:00 토14:30~20:00	3월 5일	하한수 010-2081-3368
	양재	목, 토		2월 27일	김정민 010-2067-2203
	수원	목, 토		3월 5일	이영태 010-5243-0021
	인천	목, 토		3월 5일	김광겸 010-2006-1190

제1081호 | 2016년 1월 3일(주일)

■ 남양주 대학청년부 아웃리치 간증



/ 이영혜 자매(남양주 온누리교회 J1공동체)

제주도 복음화를 위하여

지난여름 공연전도 사역을 했던 제주 협재교회로 두번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지난여름 짧은 일정 때문에 다 하지 못했던 사역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 어르신들을 찾아가 인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축복해드리고 싶었다.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아웃리치 첫날, 우리팀과 협재교회 성도들은 세 팀으로 나누어 마을로 흩어졌다. 독거노인 22가정을 방문했다. 그리고 방문하는 가정마다 예수님을 전했다. 생필품과 복음팔찌, 말씀나무를 선물로 드렸다.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 드렸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어르신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셨다. 우리팀은 여섯 가정을 방문했다. 관심을 갖고 방문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다. 어떤 할머니는 결혼 전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결혼 후에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고 하셨다. 팀원 중 한 명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독거노인 방문을 끝내고 간증하는 시간도 가졌다. 모든 팀에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도 맺혔

다. 우리와 동행했던 협재교회 한 집사님은 “평소에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아웃리치 둘째 날 아침에는 감골농장에서 감귤 따기 체험을 했다. 어르신 초청 잔치에서 쓰일 귤을 따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르신 초청 잔치가 열릴 복지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어르신 초청잔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무대도 꾸몄다.

전날 우리가 방문한 독거노인들과 협재교회 성도들이 모였다. 어르신 초청 잔치에서 우리는 건강체조와 특송, 노래자랑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선보였다. 다과도 마련했다. 어르신 초청 잔치에는 지역 불교회장님도 오셨다. 회장님은 기독교를 배척하지 않고, 표현을 잘 하는 종교라고 평가해 주셨다. 그 분의 긍정적인 평가를 들으면서 이곳에도 서서히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제주도에는 영적인 보살핌이 필요했다. 하나님이 제주도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제주도 복음화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게 됐다.

■ 세례간증



/ 손영우 성도(노원공동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다

나는 과거에 지은 두 가지 큰 죄가 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시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다. 나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 할머니를 포함해서 일가친척들 모두가 내게 교회를 다니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교회도 다니지 않았다. 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나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놀랍게도 그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신앙생활로 연결되지 못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배신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아버지께서 소장암 3기 수술을 받고, 폐렴으로 고통 받고 계셨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가 무사히 퇴원하신다면 꼭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했다. 소원은 곧 이루어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 이후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폐렴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소천하셨다. 기독교인이었던 아

버지께서 병마와 싸우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 같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신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다. 아버지께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온누리교회를 다니는 것을 무척 기뻐하고 계실 것이다.

온누리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일예배만 드릴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일대일 제자양육, 순모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

신실한 믿음을 갖추기까지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있다. 갈 길이 멀지만 할 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차츰차츰 깨닫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이수공동체 전도집회 ‘응답하라 3040’ 간증



/ 위성규 형제(이수공동체)

천국잔치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수공동체 양선다락방 양선1순 소속이다. 순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공동체 전체 활동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 어린 두 아들과 회사일이 바쁘다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다. 공동체 지체들의 연령이 40대 중반 이상이라는 점도 한몫했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었다. 그런 내게 30~40대를 위한 전도집회 준비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전도집회 준비를 위한 첫 미팅 때였다. 내 이름이 행사이전 팀장으로 올라있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영문도 모르고 팀장으로 임명된 것 같았다. 당혹스러워 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같이 전도집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절반 정도는 안면도 없는 분들이었다. 줄지어 한자리에 모이다보니 그렇게 어색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매 주일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고, 몇 시간씩 토의를 하며 전도집회를 준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견이 모아지고, 방향도 잡혀갔다. 나는 의전팀장으로서 전도집회 출연자들

과 연락하고, 그들의 스케줄을 조정했다. 공동체 전체 채팅방에 전도집회를 홍보하는 일도 병행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이 서투른 나에게 공동체 식구들이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매주 한 두편 씩 전도집회 홍보글을 올렸는데 내가 올리는 글을 기다리는 분들이 늘어났다. 어떤 분들은 빨리 올려달라고 재촉하셨다. 나의 작은 수고가 공동체 식구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드디어 전도집회 당일.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설렜다. 팀별로 행사준비를 착착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졌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집회장에 전도대상자들이 입장할 때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동안 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것 같다. 정작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다. 이번 전도집회를 통해 이수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서먹했던 공동체 식구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이수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황성모 성도

하나님께 믿고 맡겼을 뿐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이 많아서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온누리전도학교에 입학했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해야 하는지, ‘5분전도 tool(도구)’과 상황에 따른 접촉 방법, 전도체험 사례 등을 배웠다. ‘나도 전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전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

전도훈련 중에 5분전도 전문을 암기해서 발표하는 것과 노방전도 실습이 어려웠다.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하면서 열 번 이상 소리 내어 읽었더니 뜻과 순서가 이해되었다. 그렇게 암송발표를 무난히 끝냈다. 전도훈련은 계속 진행되었다. 팀별로 노방전도 실습을 단계별로 실시했다. 한번은 용산역에 전도하러 갔다. 그런데 노방전도가 처음이라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

고, 말을 어떻게 걸고, 거부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다. 함께 훈련받는 아내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용기를 얻어 나도 전도를 시도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지 40대 후반의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점심때라 식사를 했는지 물었더니 아직 못했다고 했다. 그럼 나하고 5분만 이야기하고 식사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5분전도 기본전문을 대화식으로 쉽게 풀어서 복음을 전하자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다. 구걸을 할지언정 더 이상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형편이 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나는 온누리교회 위치를 알려주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흘렀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믿고 맡겼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온누리전도학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장로칼럼 정영열 장로

백세인생

나는 올해 일흔한 살이다. 얼마 전(2015년 12월) 장로직분에서 은퇴했다. 장로가 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부족한 나를 세워주고, 섬겨준 교회와 공동체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특별히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 아내는 나를 전도한 장본인이다.

1991년부터 은누리교회와 인연을 맺었다. 그때 내 나이가 마흔여섯 살이었다. 나는 전형적인 유교집안에서 자란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유교, 어머니는 절에 다니셨다. 집사람도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다. 결혼한 후에 교회를 다녔다. 아내는 나를 전도하기 위해 9년 동안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그런데 나는 교회 가는 게 싫어 성경책을 던지고, 찢고, 불태운 적도 있었다. 아내는 그런 나를 무던히도 참아주고, 기도해줬다. 그런 아내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아내의 기도 덕분에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교회에 다니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었다. 여러 교회를 전전한 끝에 은누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내가 은누리교회에 정착하기로 마음 먹은 네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교회에 남자들이 많았다. 내가 은누리교회에 처음 올 당시에는 여자 성도보다 남자 성도가 많았다.

둘째, 헌금바구니가 성도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좋았다. 분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 것이 참 좋았다.

셋째,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 벗고 올라가지 않아서 좋다.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강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참 좋

았다.

넷째, 목사님이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틀에 박힌 모습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움이 참 좋았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은누리교회에 정착했다. 은누리교회에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주차봉사를 섬겼다. 장로로 장립을 받을 때까지 주차봉사를 섬겼다. 18년 정도 섬긴 것 같다. 남들이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시설관리를 돕고 있다.

요즘 ‘백세인생’이라는 노래가 유행하고 있다. 장로직분을 은퇴를 하면서 내 마음을 백세인생 노래가사에 담았다. 나만의 은퇴송을 만들었다.

“70세에 은퇴하라고 한다면, 모세도 80세부터 사역을 시작했다고 전해라.

80세에 은퇴하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사역 시작이라고 전해라.

90세에 은퇴하라고 한다면, 사역이 아직 안 끝났다고 전해라.

100세에 은퇴하라고 한다면, 이미 이 세상 사역 끝내고 저 세상에 있다고 전해라.”

그렇다. 나는 은퇴하지 않았다. 은퇴식만 했을 뿐이다. 난 아직도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자비량 선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 우리 부부는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를 다녀왔고, 올해는 네팔, 아프리카 감비아, 르완다에 갈 계획이다. 선교지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싶다.



권사칼럼 박인숙 권사(은누리 전도학교)

전도, 고정관념부터 깨라!

사람들은 모두 틀을 갖고 본다. 아인슈타인은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삶과 모든 삶은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후자의 삶을 선택 했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힘들다. 못 할 수밖에 없는 구실을 찾게 된다. 전도를 하려면 고정관념부터 깨야한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고정관념은 고장 난 관념을 의미한다. 고정관념을 깨려면 생각을 바꿔야한다. 가장 먼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전도하면 행복하다는 생각도 빼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길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시작한다.

나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큰 사고였다. 머리를 다쳤지만 큰 이상은 없고, 꼬리뼈에 금이 가서 누워 있으면 됐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보였다. 한 자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균이 침투해서 수술을 받았다.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일찍 결혼해서 24살 된 아들이 간병을 하고, 바쁜 남편과 딸은 밤에만 찾아왔다. 나는 취업준비생인 그녀의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CGNTV 진로특강을 소개해줬다. 그렇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 자매의 외조부는 스님이셨고, 친가는 가톨릭, 자신은 종교가 없다고 했다.

며칠 후, 새벽 1시경에 그녀가 “따라 오지 마, 저리가!”라며 잠꼬대를 했다. 아침 회진 때 주치의가 그녀에게 자주 굳이 생겨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자

매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펄 울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고나서 아픔보다 죽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간밤에 악몽을 꿴다고 했다.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 성당에 나가요. 예수님도 믿고, 성모님도 믿어요.”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니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녀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을 본 그녀의 아들이 “엄마, 나도 교회에 갈거야”라고 했다. 그녀는 재수술을 하러갈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씀카드를 코팅해 주면서 말씀과 기도가 실제로 이뤄지는 기적을 기대하자고 했다. 그녀는 내가 코팅해 준 말씀카드를 침상에서 놓지 않았다.

반드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병상에 있게 한 이유가 해석이 됐다. 나는 전도할 때 타종교와 비교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다만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 예수님게로 향하고, 교회에 관심을 보이면 그때 교회로 인도한다. 그리고 공동체와 중보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이것이 바로 전도다.



신앙에세이 이정환 목사(분당B공동체)

인생의 신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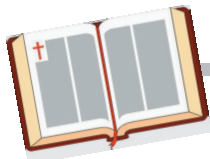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등을 자주 만나게 된다. 나는 신호등 색깔에 따라 기분이 묘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파란불을 만나면 손살갑이 내달려 교차로를 빠져나간다. 목적지에 빨리 가야하는 나에게 파란불은 기쁨의 선물이다. 노란불을 만나면 갈까 말까 고민하다 브레이크를 밟는다. 목적지에 빨리 가야하는 나에게 노란불은 한숨을 짓게 만든다. 조금 일찍 가야하는 데 하고 아쉬워하고, 조금 더 빨리 통과하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한다. 빨간불을 만나면 아무리 바빠도 차를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다. 빨간불은 나에게 답답함과 무기력을 안겨준다. 다시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나를 꽁꽁 묶어두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도 신호등이 있다. 살다보면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마음먹은 것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술술 풀리는 순간이 있다. 그때가 바로 인생의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을 때다. 파란불 신호는 거

칠 것 없이 우리를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데려다준다. 인생의 신호에 파란불이 켜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시에 교만해진다. 죄인 된 인간은 인생의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믿는다. 그래서 죄인 된 인간에게 파란불 신호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인생의 신호등에 노란색이 켜지면 잘 나가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건강했던 몸이 이상 신호가 온다. 잘 자라주던 자녀들이 반항을 하는 때가 바로 인생의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진 때다. 노란불이 켜지면 “이상하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며 걱정한다. 때로는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인생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된다. 번창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행복했던 부부가 파경을 맞고, 건강했던 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때가 바로 인생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다. 인생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낙오하고 실패한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인생의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 더 큰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지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잠잠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면 더 큰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이제는 모두 끝났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한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어야 한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2016년을 걸어간다면 인생의 신호등에 어떤 불이 켜지더라도 승리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에 올 한 해가 기대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첫 아프리카인의 구원

성령님이 그 마차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가 빌립을 초청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은 문자적인 내용은 이해했지만 의미는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성실하게 읽는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의 갑갑함을 보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관리의 대답은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언어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눈은 학위를 마쳐야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100독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눈을 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롬 10:2).

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올바른 지식을 좇지 못하는 열심, 바로 깨닫지 못한 열심에 불과한 것이 에티오피아 관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순수한 열정과 종교적 열정은 있지만 복음을 바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이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32-33절).

빌립이 그에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아 불의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인내하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던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열리지 않았던 에티오피아 관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열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껍데기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뤄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증언이 바로 성경입니다.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은 그는 눈이 열렸습니다.

“보라 물이 저기 있으니 내가 세례 받는 것이 왜 주저할 일인가?”

그는 스스로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눈이 열렸고, 복음과 말씀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

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총명한 세례식이었습니다. 교회법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소리치고 싶을지 모릅니다. 증인도 없고, 세례는 교회 등록한지 몇 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데 즉시 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인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면 세례를 주고 나와야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법을 뛰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에티오피아 관리를 사회적으로 비교하면 빌립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빌립은 사회적 위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관리는 한나라의 재무부장관이고, 엘리트였습니다.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탁월한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티오피아인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평범한 빌립을 통해 예수님 믿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총명한 증거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복음증거는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성령 총만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이런 역사를 온누리교회가 계속 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빌립이 되고, 이 시대의 또 다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궁금한 창조과학이야기 8. 치아



우상두 박사
(창조과학회 이사, 단국대 해부학 겸직교수)

한국이 고령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튼튼한 치아고, 또 다른 하나는 쫘쫘한 허리다. 잘 먹으려면 치아가 좋아야 하고, 척추가 튼튼해야 내장기능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치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긴다. 수정란이 된 후부터 6주가 되면 치아 씨앗이 형성된다. 이유식을 시작하는 생후 6개월에는 젖니(유치)가 나오기 시작한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는 만 6세가 되면 간니(영구치)가 나오고, 중학생이 되는 만 12세가 되면 간니만 남는다. 평생 동안 젖니와 간니 두벌의 치아를 갖는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치아 때문에 어려워하는 시기는 젖니가 빠지고, 간니가 나오는 때다. 이 때를 ‘치아교환’ 시기라고 한다. 젖니는 위턱과 아래턱에 각각 10개가 있다. 좌우 대칭으로 앞니 2개, 송곳니 1개, 어금니 2개가 있다. 20개의 젖니가 빠지고 간니가 나오는 6년 동안은 혼합치열을 갖는다.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 “한 번에 치아가 다 빠지고, 간니가 모두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한 번에 치아가 빠지게 되면 식사를 할 수 없다. 성장기에 영양실조를 겪게 될 것이다. 치아는 하나가 빠지고, 새 치아가 나온다. 그 과정이 생명의 원칙이다. 두세 달이 지나면 또 다른 치아가 빠지고, 새 치아가 나온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이 20개의 젖니가 빠지고, 간니가 나온다.

젖니는 작고 폭이 좁다. 반면 간니는 크고 폭도 넓다. 젖니 빠진 자리에 간니가 나오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작은 젖니와 커다란 간니의 공간 부조화는 젖니 어금니 자리에 작은 간니 어금니가 나오면서 상쇄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간니 중에 세 번째 어금니를 사랑니라고도 부른다. 사랑니가 자리를 잘못 잡으면 아프고, 염증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니를 퇴화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사람 몸에 퇴화기관은 없다. 진화가 일어난 적이 없으니 퇴화기관도 있을 수 없다. 사랑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식습관의 변화와 알레르기 질환 등으로 구강 구조가 작아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어금니가 날 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사람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어떤 이는 사랑니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네 번째 어금니가 나는 사람도 있다.

‘치아’ 에도 숨어있는 창조주의 계획

간니는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하는 치아다. 치아는 기막히고 놀라운 구조로 되어있다. 1입방센티미터(㎤)도 되지 않는 작은 크기면서 6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함이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치아는 단단한 법랑질(에나멜), 상아질, 백악질(세멘트질)로 구성되어 있다. 신기한 것은 가장 강한 법랑질은 상아질이 있어야 형성되고, 상아질은 법랑질이 있어야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상호유도 작용은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막힌 설계이다.

치아는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단단함을 가지고 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치아로 잘 부서진다는 것도 창조주의 오묘한 계획이다. 치아는 단단하면서도 참깨같이 작은 것을 분간해낸다. 머리카락과 같이 얇은 두께도 감지할 수 있다. 치아를 잘 사용해서 좋은 음식을 충분히 씹으며 맛을 음미해야 한다. 그래야 치아와 건강 모두에게 좋다.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를 보면 어떤 것도 놀랍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치과의사로서 매일 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치아를 보며 치료할 때마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된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시139:14).

게시판

14 온누리신문

2016년 1월 3일(주일) | 제1081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 (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 (010-3301-2897)

장애허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 (010-5358-3648)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전도사(010-2880-1707)

예수사랑부예배(청년자적장애우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최성훈 목사(010-8820-9191)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과워워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본관 B102호

문의: 김기행 집사(010-8627-2098)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차세대 수요 어머니 기도모임

서빙고: 매주 수 오전 9:15 누리를

양재: 매주 수 오전 9:15 화평홀

도곡: 매주 수 오전 9:30 온유홀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도곡 02)570-7553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2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툼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여성사역 교회큐티방

월요나눔방 9/7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화요나눔방 9/7개강 10시-12시30분, 드림홀

수요나눔방 9/2개강 1시-3시, 신관203호

목요나눔방 9/3개강 1시-3시, 신관203호

금요나눔방 9/4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문의: 여성사역(02-3215-3247)

주일 7부예배 싱어 모집

자격요건: 온누리교회 세례, 등록교인

연습시간: 매주 주일 저녁 7시

문의: 김미경 팀장(010-4876-1480)

주일 5부예배 자막봉사자 모집

자격요건: 온누리교회 등록, 세례 교인,

1년 이상 주일예배 출석, 주일

5부 예배 연습시간부터 예배 마

무리까지 성실하게 섬겨주시길 분.

시간: 주일 오후 3:00~6:00

문의: 박이호 전도사(010-8581-6481)

두란노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1월23일~3월5일(매주 토 오후5시)

2/6, 2/20 휴강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회비: 120,000원

접수: 02-2182-9100 / www.father.or.kr

문의: 김재택(010-8789-7316)

웬 이스라엘?

일시: 1월 16일~3월 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15~12: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인원: 선착순 100명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810017-18005,

* 입금시 이름과 연락처 필히 기재)

또는 온누리교회 I.School 등록 가능

문의: 02-792-7075-6

IBS 서빙고 목요반 31기 모집

일시: 1월 14일~2월 25일, 매주 토요일 오

전 10:15~12: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301호

인원: 선착순 30명, 등록비: 1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810017-18005,

* 입금시 이름과 연락처 필히 기재)

또는 온누리교회 I.School 등록 가능

문의: 02-792-7075-6

*게시판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시간: 수요일 오전 10:30

장소: 양재 본당(사랑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말씀: 이상진, 문영재, 박성희 목사

문의: 유재홍 간사(570-7437)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말씀: 이상진 목사

문의: 윤상화 간사 (570-7430)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상민 팀장(010-4720-466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담당: 이정환 목사

시간: 매주 주일 오전 11:20

장소: 양재 트리니티 신축건물 304호

문의: 오탄 간사(02-570-7522)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 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2000선교 프랑스어 겨울 특강

(기초과정)

2016
NEW YEAR
CGNTV

1

CGNTV 선교자산 나눔

CGNTV 선교 관련 콘텐츠 나눔
: 선교역사 다큐 <서서평 선교사>

2

시청자 중심의 방송

멀티 플랫폼, 시청자 맞춤형 콘텐츠
: <Knock>, 웹드라마

2016년에도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다가가는
CGNTV 가 되겠습니다.

3

미래 방송 기반 마련

시청층과 시청형태 변화에 따른
미래 방송기술 준비

4

글로벌 선교교육방송

해외지사 및 현지 기독교 방송사와 제작협력
: 종교개혁 500주년 프로젝트

2015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5년에도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TV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발급기간 : 2016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등록기관명 : (재)온누리선교재단)

2. CGNTV 후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http://give.cgntv.net>
- 발급기간 : 2016년 1월 11일부터

3. 이메일, 팩스, 우편발송 요청

- 후원관리팀 02-796-2243 신청

CGNTV

Tv 프로그램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멘토들의 강연
<CGNTV 맞춤특강 나침반>에 이어
성경 속에서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나침반 바이블> 신설
(매주 목, 금 오전 11시)

▷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매주 월, 화 오전 11시
1/4 도은미 사모 / 브라질 동양선교교회
'가정의 관계구조를 재설정하라'
-1/5 이병욱 원장 / 대암클리닉
'임을 손님처럼 대접하라'

▷ [NEW] 나침반 바이블
-매주 목, 금 오전 11시
-1/7(목) 첫 방송 박은조 목사 / 은혜샘물교회
-1/8(금) 김남준 목사 / 열린교회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able & more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 간 | 편 | 성 | 표

1/3(주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지구촌 반사회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유윤선의 하늘빛항기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16: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페리 노블의 믿음의 승리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열바인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2015 임직자스쿨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23:50 데이비드 플랫폼의 래디컬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유윤선의 하늘빛항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컨퍼런스] 새 하늘과 새 땅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2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06:3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지구촌 반사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IN2) 15:30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20:10 2015 추앙재단 목회강좌 21:00 [말씀]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파트릭의 시도행전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1:3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산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민나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3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19:00 2015 추앙재단 목회강좌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2:30 미션 로드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